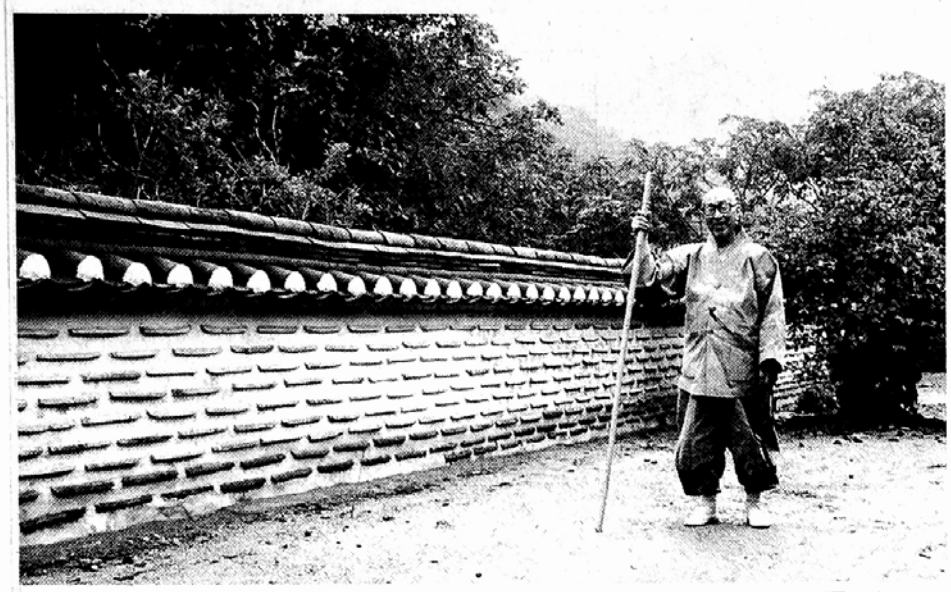


◇내가 제일이라는 아집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시는 지종스님.

"나누면 나눌수록 세상은 살만"
"공인일수록 언행일치 더 필요"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가들부터 자기 당 이익만 고집하고 제멋대로예요. 도덕이 바로 잡히고 사회윤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경제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로지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경제적인 발전만 우선시한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 모습입니다. 원인없는 결과가 없는 법이지요. 기본도 안돼 있으면서 세계 선진국하고 똑같이 해 나갈려고 하니 문제지요.

이러한 때일수록 누구 할 것없이 부처님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법구경〉에서도 탐욕이 걱정을 낳고 탐욕이 두려움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욕(多欲)은 괴로움이라고 했고 생사피로가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소욕(少欲)해 담담히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자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해 적게 가진 것을 괴로워하고 물질에 집착한다면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새 황금만능주의로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믿어요. 돈은 제것이 아니예요. 돈이라는 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지. 누구 소유물이 아닌데 천년 만년 제 소유물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그걸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안타까워요.

부처님께서는 유루복과 무루복을 말씀하셨어요. 유루복은 한계가 있지만 무루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흘러가는 산골의 시냇물을 보세요. 아무리 퍼내도 퍼내도 줄거나 마르지를 않아요. 그것이 무루복입니다. 두루복을 지을려면 어떡하면 되느냐. 나부터 비워버려야 해요. 나부터 비워버리면 남을 도와주었다 해도 더 못 도와주어서 그러지 내가 남을 도와주었다는 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못 미쳤구나. 내가 복을 못 지어서 더 못 주는구나 이러한 미안한 생각이 드는게 부처님의 자비정신입니다. 뭐 좀 냈다고 텔레비전에 사진내고 신문에 큼직하게 이름내고 하는 것은 복짓는 일이 아니예요.

부처님정신은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이 편치 못하면 내 마음도 편치 못한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가끔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회광반조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새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아까워서 억지로 뺏어버리는 풍조니 문제지.

마음을 비우고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국민각자가 자기 분수를 살펴 살아야 하는데 분수를 넘어 살려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왜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치가들부터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국민들도 따라 합니다. 또 공인일수록 언행이 일치돼야 해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편안게 하고 잘 살게 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불자들 각자가 진실로 참회하고 자신부터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 사회가 개혁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자신을 개혁시키는 첫 걸음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을 잘 운용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것인지요.

▲우선 나부터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아집을 버리면 모든게 편하고 화해가 저절로 됩니다.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부모자식간이나 형제간에도 갈등이 와요.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시작은 자기 마음부터 조복받아야 해요.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야. 내집부터 편안하고 화합하면 그것이 곧바로 세계의 화합으로 연결되는 이치를 알아야 해요.

아집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수행에 가장 방해가 되는 병통이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내가 잘 났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조금 지고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 사심이 없고 아집을 버리고 오로지 공심으로 추진하면 다 수긍하고 따르게 되어 화합이 저절로 됩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났고, 대접받을 생각만 하면 어떤 일도 못해요.

또 이세상이 더불어 산다는, 상의상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누는 정신 아니면 세상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남을 어떻게든 깔아뭉개야 내가 윗자리에 선다 이런 경쟁과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발전되고 잘 산다고 해요. 그러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다 잘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부정부패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지요? 남을 밟을게 아니라 밟힌 사람을 살려내고 격려해 다같이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가 밟아버렸으니까 영원히 썩어버려라 하는 그런 정신은 무의식적이라도 안들도록 마음을 바로 쓰세요. 사람이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깔아뭉개는게 어찌 사람입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 내 몸뚱아리가 불신(佛身)도 되고 법당도 되지만 잘못하면 마구니 집이 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세요. 이 육신을 법당을 만들 것이냐. 마구니집을 만들 것이냐 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 과학과 물질 발달로
> 육신은 한없이 편해져
> 망상과 게으름 더하니
> 경계 또 경계하세요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문명 물질문명이라는 것이 육신을 한없이 편하게 하지만 육신이 한없이 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온갖 망상은 게으른 육신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헌 신짝같이 버렸기에 부처가 되었어요. 엄격한 수행을 통해 불신이 된 것이지요. 애욕이란게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 육신 하나 조복을 받을 정도가 못되면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신을 조복받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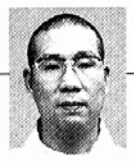
▲무상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이 육신이 가장 하찮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공창이라고 까지 표현했어요. 창이라는 것은 썩어갖고 피고름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코 눈 입 등 9구멍에서는 늘 더러운 것이 나오지요. 자기가 뱉은 침은 아니지만 남이 뱉은 침은 더럽다고 생각하니 어리석지요.

초개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 풀끝에 달린 이슬, 즉 이 몸이 무상한 것이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옛날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나 나 하지만 어떤 것이 나인가, 육신덩어리가 나라면, 내 참모습이라면 육신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육신덩어리는 순간순간 변해가요. 샛별같던 눈은 어두침침해지고 거울같이 맑았던 귀가 잘 안들리고 좋은 이빨 다 부서지고 그러니 이 무상한 육신을 보존하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고 벌벌 떨면서 하나 아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이 자기의 전부인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끔찍하게 위하지요.

나이들어 세상 허망한줄 알고 뒤늦게 공부좀 해 보려고 해도 힘도 없고, 번뇌망상만 늘어나고… 안돼요.

늙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부지런히 닦아 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은 천근만근 쌓아놓고 죽어봤자 죽을 때 갖고가도 못하고 업만 잔뜩 지어 놓는 꼴이예요.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석두 스님

산행을 한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몇 번이고 오르내리다 보면 갈증이 인다. 그때 조그만 바위틈 졸졸거리며 고여있는 샘물을 두손으로 조용히 떠서 목을 축여보자. 그리고 일렁이는 햇빛 물살 속에서 말갛게 동그라미를 그려 나가는 샘물을 바라본다. 그러면 동그란 얼굴의 장난기 많은 그 스님의 맑은 심성이 생각난다.

바람이 분다. 어느덧 가을이란 계절이 바람을 안고 저 계곡 어디에선가 부터 달려오고 있는가 보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휑한 가슴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면 늘 가을바람처럼 맑고 시원한 성격으로 녹차 한잔을 들이밀던 그 스님의 웃음소리가 생각난다.

석두(石頭)스님.

어릴 적부터 무척 개구장이였었나 보다. 산중에서는 대개 그믐날과 보름전날에 삭발을 하는데 어쩌다 그 스님의 머리를 깎아주다 보면 마치 머리 전체가 휴화산의 분화구를 연상케 할만큼 흉터가 많다. 여간 조심하지 않고는 베어지기 십상이다. 아마도 석두스님은 어릴 적 골목대장쯤은 되지 않았을까 ?

이 석두스님의 행자시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있다.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개울가에 쭈그리고 앉아 고무신을 닦는 모습이 이 행자가

가끔 엉뚱한 행동하지만 가진것 다주는 맑은 심성

보기에는 무척이나 죄송하고도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저 고무신을 매일 닦지 않아도 될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 해답을 찾았다. 그리고는 은사스님에게 자랑스럽게 고하였다. "시님, 이제는요, 그 고무신을 애써 씻을 필요는 없걸랑요. 지가요 다 조치를 취해 놓았걸랑요." 은사스님이 요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어 따라가 보니 정말로 고무신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게 아닌가. 그래도 미심쩍어 가까이 가보니 아뿔싸 흰 고무신에 니스를 칠해 놓았던 것이다. 하나만 더 소개해 보자.

산중에서는 스님들 방마다 차상(茶床)이 있어 항상 차를 가까이 벗하고 사는데 하루는 사숙스님 방에 가보니 창살문짝에 바퀴를 달고 유리를 얹은 그 차상이 석두스님 보기에는 무척이나 좋았다. 그래서 스님도 하나 만들려고 작심을 하게 되는데 도통 문짝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급한 김에 화엄사 보수공사로 잠시 떼어 보관해둔 국보급 문짝을 가지고 차상을 만들었다니 정말 못 말리는 스님이었다. 스님 법명이 돌 석(石)자 머리 두(頭)자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은사스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석두 스님은 무엇이든 자신이 소유하는 법이 없다. 가진 것 있으면 다 주어버리고 그도 모자라면 어디서 구해서든 줘 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석두스님이 해인 강원에 있을 때다. 석두스님의 은사스님께 없었던 버릇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석두스님 때문이란다. 석두스님이 다녀간 자리는 온전하게 보전된 것이 없었다. 온갖 곳을 다 뒤져 옷이며 내의며 양말이며 또 기타 것들을 주섬주섬 담아 가지고는 주위 어려운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리는 통에 급기야 은사스님께서는 자물통을 채웠다나 어쨌다나?

하지만 석두스님의 생각이 모자라서 생기는 일들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 어떤 스님보다 속이 꽉 차고 정이 많은 스님이라 너무나 알차고 알차서 삐져나온 행동임을 잘 알고 있다.

석두스님이 사미계를 받을 때의 일이다. 힘든 행자생활을 마치고 계를 받은 사미들은 열심히 중생활 잘하겠노라고 서원하며 서로가 서로의 신심을 북돋워 주며 삼삼오오 일주문을 나설 때였다. 어디선가 격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중이 되려고 하느냐 ?" 호통소리와 함께 한 사미가 가족들의 손에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또 다른 한곳에서는 손에 꽃다발을 든 중년부부가 한 사미에게 꽃공양을 올린 다음, 비가오는 진흙탕 속에서 삼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 사미가 석두스님이며 중년부부는 석두스님의 부모

그림 · 문병성

님이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석두스님이었으니 그 심성이 맑기야 오죽하겠는가.

지금 석두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천은사에서 천일기도 중이다. 강원졸업하고 얼마 후 시작했으니까 한 오백일쯤 되나보다. 항상 베풀기 좋아하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간직할 줄 아는 스님. 가끔씩 엉뚱한 행동으로 곤혹스럽게도 만들고 곧잘 응석도 부릴 줄 아는 스님. 이 석두스님을 만난지도 칠팔 년이 되어간다. 항상 어린 줄만 알았던 스님이지만 정말로 출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자던 경책의 말로 나태해진 나 자신을 곧잘 일깨우기도 하는 스님. 이제는 이십대 후반의 나이에 하루 사분정근의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나의 손목엔 관솔을 손으로 빚어만든 염주가 걸려있다. 얼마 전 석두스님이 서울 생활 중에서도 항상 초발심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천은사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언제든지 손목을 들면 솔 향기가 난다. 이 솔 향기는 석두스님을 닮아 있다. 항상 언제까지나 이 솔 향기처럼 푸르고 성성하게 천진무구함을 잃지않는 스님으로 정진하길 기원해 본다.

*앞으로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할 호산스님은 1989년 지원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월간 〈해인〉 출판부장, 봉은사 포교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있다.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강좌
유마경 대강좌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 큰스님께 직접
대승불교경전을 공부할 평생경전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져 합니다.

1.강의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년)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11월 5일(일) 오후6시
4.개설경전	유마경 · 육조단경 · 금강경 · 선가귀감 · 원각경 · 천태학 · 법화경 · 화엄경등
5.입지수계	매과목 경전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 큰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6.입 학 금	50,000원
7.등록하신 모든분들께 유마경교재와 기념책가방을 드림	

※유마경은 불이법문으로 유명하며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한역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힐소설경입니다.

※유마경 보살품 제 4. (광엄동자와 도량)
그때 유마힐 거사는 성안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광엄동자가 인사를 하고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야"
광엄동자가 물었다. "도량은 어디입니까?"
유마힐거사는 대답했다.
직심(直心)이 도량이며, 심심(深心)이 도량이며,
보리심(菩提心)이 도량이니라".....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28분 안에 선승과 같은 명상상태 돌입!
— "초월적 경험의 보편화" 신과학 뉴로테크놀로지 명상법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어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면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기로써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냈는데 우연히 모 월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번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지이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메가플러스 안내책자에는 명상이 무엇인지 체계있는 이론과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문 수행인, 직장인,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메가플러스 명상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이들에게 공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메가플러스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조화를 창조하고 보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은담명상체험교실 종익 합장 · (031)742-9859>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기본사양 녹색광안경/옵션 청색, 보라색, 순백색광안경)
〈미국 마이크로펌사 제품 Made in USA〉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작동되며 이를 체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유체이탈, 무시간상태를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중국 OEM〉

사 용 효 과

재충전효과 :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이완과 깊은 휴식으로 생체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회복, 스트레스해소, 정신안정, 불면증해소, 집중력 증강의 98% 효과를 보장한다.

명상효과 : 알파/세타파 중간지점(여명의 지대)에서 빛의 관법(옴시테크닉/겐즈펠드)과 소리관법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메가플러스의 바이놀 비트와 핑핑, 페이즈 기능은 전 차크라의 개방(에테르체 수준), 무시간/진공상태 경험을 보다 쉽게 유도해준다.

마인드테크 제품/구입문의 (02)888-2142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